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Ⅲ

16대 대통령 출마자에게 듣는다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의 종교와 문화정책에 대한 마인드는 향후 불교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창간 8주년을 맞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어떤 종교 · 문화정책을 구

질의내용

1.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종교정책을 펴실 생각이십니까.
2. 정부의 문화예산이 4년째 일반예산의 1%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불교문화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불교 관련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3.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기관과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찰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불교계 정보화 수준이 낮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불교계 정보화 발전을 위한 검토와 지원 의향은?
4. 문화콘텐츠 개발이 국가 문화사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의 보고인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활용은?
5. 지난 9월말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문화재의 효과적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에서 부실공사가 계속되는 등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6. 조계사는 경복궁-인사동-북촌-청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의 중심축이자 불교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조계사 일대의 문화지구 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북한산 관통도로나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환경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8. 환경운동, 대북교류 등 불교의 대사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가한다면?
9. 정부의 불허로 지난해 달라이 라마 방한이 무산됐습니다.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10.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갈등현상이 간혹 일어납니다. 종교화합을 위한 방안은?

대선후보들 불교와 인연은…

◉이회창: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가톨릭의 화해와 일치, 나눔의 정신은 불교의 화쟁, 자비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 후보의 불교인연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경주 삼불사에 딸린 한 암자에서 두 달 정도 머무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두 차례 연속 선출되면서 대부분의 불교계 중요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불문(佛門)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 역시 가톨릭 신자지만 웬만한 불교신자보다 가본 절이 더 많을 정도로 불교와 친숙한 편이다.

◉노무현: 무종교인이다. 그러나 "불교는 개인의 완성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함께 완성되기 위한 고도의 철학과 실천력을 겸비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노 후보의 불교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 어릴 때 어머니의 독송에 잠을 깨곤 했다는 노 후보는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노 후보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독실한 불자다. 지난 1일 해인사 1200주년 개산대재에 참석한 후 종정 법전스님으로부터 대덕화(大德華)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권영길: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권 후보는 "불교는 훌륭한 사상체계를 갖춘 종교이며, 특히 내가 추구하는 평등사상이 불교의 평등사상과 거의 같다"고 말한다.

권 후보의 불교 인연은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가 서울 봉은사 신도였던 권 후보도 경허, 만공스님들의 고승전을 읽으며 삶과 세계를 초월해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스님들의 삶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북한산 관통도로나 경부고속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에서도 적극 찬성했다. 부인 강지연 여사도 가톨릭 신자다.

◉정몽준: 개신교 신자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의 민족종교로 국가의 명운과 함께 해왔다"고 말한다.

정 후보의 불교인연은 아버지인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청담스님과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무사고를 위해 청담스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정 명예회장은 타계후 49재가 서울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정 후보는 지난 6일 권영길 후보가 함께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보수불사 고불식에 참석, 월드컵때 보여준 불교계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후보의 부인 김영명 여사도 개신교 신자다.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1909년 황해도 출생
195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60~65년 인천지원 · 서울민사지법 · 서울형사지법 판사
197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81~86년 대법원 판사
1988년 대법관
1988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989년 감사원장
1993~94년 제26대 국무총리
1996년 신한국당 상임고문, 대표위원, 총재
1997년 한나라당 제15대 대통령후보
1998~2002년 同총재
2002년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후보

불교문화가치 발굴 · 보존

1. 종교정책은 자율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교가 국민의 정신과 문화생활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2. 현 정권은 문화예산 1%를 강조하고 있지만 불교문화나 민족문화 등 우리가 계승발전 해야 할 순수문화에 대한 지원은 전체 문화예산에 비해 작습니 다. 이러한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교문화와 민족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며 보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3. 불교계의 정보화 이용실적이 50%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검토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정보화는 정부차원보다는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교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당에 지원방안을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불교수행 등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미 현 정부에서 전통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교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저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불교계가 참여하여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것입니다.

5. 비지정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지정문화재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비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전체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불교문화재는 전통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불교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불교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에는 반드시 불교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6. 조계사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라면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7. 가장 큰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절차나 시각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8. 우리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수천년 간 보존해 온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 불교가 환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에서 불교계가 대북교류에 앞장서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교계의 대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9. 달라이라마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10. 제가 믿는 가톨릭은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불교의 화쟁사상, 자비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재 보수 반드시 불교인 참여케

서울 조계사 일대 문화지구 지정 찬성

노무현 후보(민주당)

1946년 경남 진영 출생
1966년 부산상고 졸업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8년 변호사 개업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1991년 통합민주당 대변인
1995년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최고위원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후보

균형잡힌 종교정책 펼것

1. 역대 정권에서는 나름대로 균등하고 평등한 종교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종교 간의 인적 편향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종교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여 종교정책에 있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무형문화재의 유지와 계승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교계가 문제로 삼고 있는 문화예산의 집행에 있어 문화재의 질과 양에 따른 예산 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불교의 현대화 · 정보화에 대해 적극 찬성입니다. 정신문화를 이끌어 가는 불교가 정보화와 접목될 수 있는 점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 DB 구축, 불교 포털 사이트, 관광 연계 템플 스테이, 인터넷 지원 시스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콘텐츠 강국이 상상력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불교문화 관련한 콘텐츠 개발은 결국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 문화재가 도난 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의 부실공사는 문화재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6.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조계사 근처까지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때에 문화지구 지정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과 결과가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만족시켜서는 안되고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개발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수행환경과 문화환경의 수호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행의 완성과 함께 사회의 완성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라든지, 민족적 자주권 등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익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정치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0. 근래 들어 종교간 화해와 공유의 모습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속에서 종교간 갈등이라는 문제해결점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적극적 참여 검토

수행환경보호 양보 · 타협으로 해결해야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www.dongguk.edu

열린교육으로
참사람을 길러냅니다

물질중심의 가치관에서 인간중심의 가치관으로,
닫힌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울타리 안의 교육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세계화 교육으로 -
동국대학교는 기존의 생각과 발상을 뛰어넘는 교육체계,
참사람을 길러내는 열린교육으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이면 개교 100주년 -
'참사람 열린교육' 의 도량(道場) 동국대학교가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빛낸 인재를 배출해냈듯
새로운 100년에는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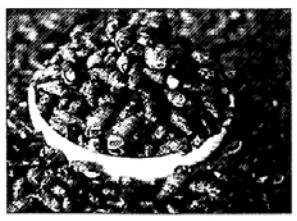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암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